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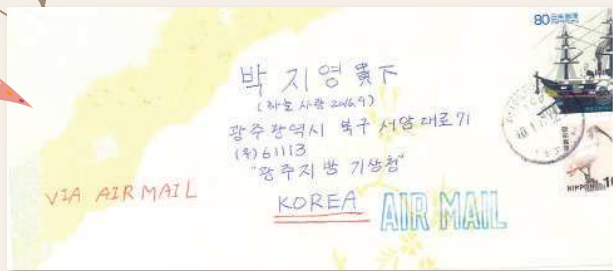
일본에서 온 편지

HOKKAIDO



박지영
광주지방기상청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가 국제우편을 가지고 왔다. 갑자기 무슨 국제우편? 영어 울렁증이 있는 난, 학창시절 그 흔한 펜팔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오는 국제우편이라니? 잘못 온 우편인가 했는데 봉투에 한글로 또박또박 쓰여 있는 내 이름! 설레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세상에! 작년 <하늘사랑>에 실린 내 글을 보고 일본 기상청 직원 '사토' 씨가 보낸 편지였다. 사토 씨는 우리 기상청 홈페이지를 업무상 많이 참고하면서 <하늘사랑>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한글자 한글자 쓰여 있는 그의 글을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 또한 동봉한 명함의 메일주소로 바로 답장을 보냈고 그동안 몇 번 소소한 일상이나 사진들을 교환하고 있다. <하늘사랑>으로 멋진 인연을 알게 되었고, 그런 <하늘사랑>에 사토씨의 동의를 받아 일본에서 온 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박지영씨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처음 봤습니다. 지난 9월에, 「하늘사랑」 기사를 흥미를 가져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기상청에 다니고 있는 사토 라고 합니다. 1960년생입니다. 나의 고향은 북해도 오타루입니다. 그 텡화 (love letter)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북해도 핫카나이 기상대(지청 번호 4740) 기술되어 채용되고 나서, 대부분 항공기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략 3년 마다 전근 명령을 받고, 지난해는 오키나와에서 항공예보(TAF)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상청은 전근은 안하죠?

벌써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영씨가 여행했을 때는 행운이었습니다. 2016년 8월, 북해도에 셋개 태풍이 잇달아 상륙해, 넷번째 태풍이 급접근했습니다. 이것에서, 각지에서 하천의 범람이나 다리의 유실 등 심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태풍이 발생해도 북해도에 오는 무렵에는 은대저기압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위기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믿음들을 슬슬 고쳐야 할 것인가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북해도는 자연이 풍부합니다. 치토세 비행장(RJCC)를 있는 마을의 가을이 되면 소삼하는 연어를 볼 수 있고, 때때로 어우나 다람쥐가 볼 수 있다. 부디, 다시 북해도에 놀러와 주세요.

지영씨가 쓰여진 기사를 읽고 나서 곧바로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10월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바쁘고, 이미 새로운 한 해가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상청의 'home page'는 날리나 황사의 실황 등, 얻을 볼 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어도 공부할 수 있고, 열석이죠입니다. 일본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여러가지 날씨 현상이 있어, 재미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한국 여행할 때는, 갔던 적이 없는 전라도나 충청도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는 하면 기사를 방문 해서 직원 의 사람들과 한국장기 국제 친선 대국을 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박지영씨 가정에 행복과 안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10일
佐藤 孝一 배상

